

사탄의 옛 틀에서 복음과 사랑의 새 틀로

- 복음으로 여는 요한일서 -

창세기 3:1-6, 요한일서 4:8-12

정운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주님의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떨어진 이 메시지가 바로 나를 통해서 현장에 열매 맺고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틀이 바뀌며 우리의 삶까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다. 그는 참으로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었다. 가장 사실적이고 정확한 복음서인 요한 복음을 기록했으면서도, 이와 전혀 성격이 다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떤 혹자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일, 이, 삼서를 기록한 사람이 다르다고 말하지만 내용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다. 요한복음을 보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구약성경을 틀에 넣고 짜면 한 권의 책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한다. 요한복음을 또 틀에 넣고 짜면 한 요절이 떨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한 사도가 말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일곱 곳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로 보낼 수 있는 묵시 문학, 어려운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그때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지 않고 피해야면서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 밖에 없었다. 요한계시록의 80~90% 내용은 구약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립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잘 완성시켜놓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가장 젊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해서 100세까지 산 것으로 보고 있다. 20, 30년 전에 모든 나머지 제자들이 순교했다. 베드로도 AD 64-67년 사이에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그 시기에 순교했다고 보고 있다. 그레갯자 70년 안이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 후로 20, 30년을 살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사도였다. 책임이 아주 막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교회에 보낸 요한 일, 이, 삼서를 간절한 마음을 담고 편지를 쓴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을 잘 정리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고난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까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영적 서맛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요한이 홀로했는가. 요한 사도도 똑같이 엷다운이 심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레의 자식이라고 말한다. 우레가 번개 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성격이 어땠겠는가. 성격이 옥했다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에게 기대기도 했다. 경이 많고 감정이 부드러운 사람이 열 받으면 이상하게 변한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엷다운이 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원래는 근본적으로 좋은 바탕이 있었던 것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분위기도 모르고 ‘예수님 언제 죽으세요?’ 했던 사람이다. 그런 모습이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시아의 전 세계 교회를 끝까지 책임졌다.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역사 기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AD 60년까지 예루살렘에서 보호하고 있었다. 여러분의 스승님이 스승님의 부모님을 맡기고 가면 좋겠는가? 힘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복음적이면서 그 사람과 삶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였다. 시간이 지나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다 순교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담당했던 디모데도,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에베소교회를 사역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모시고 돈을 모아서 집을 지었다고 말한다. 요한 사도는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사역했던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여러분도 이러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바란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누구보다도 교회 안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낸 것이다.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과 부부생활을 오래하면 점점 좋아지던가. 아니다. 세월이 지나면 좋았던 사이도 안 좋아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세월이 지나면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 세월이 지나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더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성도가 말한다. ‘목사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넘치는 교회가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했다고 한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했다. ‘그런 교회 있으면 나에게 소개시켜주세요. 교회 옮기게.’ 이 땅에는

없다. 여러분 상처입어도 직장생활, 학교는 잘 다니지 않은가. 문제 있어도 부부생활 잘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회생활이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몇 대로 믿는 사람도 모였을 것이다. 삶, 나이도 다 다르다. 그래서 그릇이 커야 한다.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갖추기를 바란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이상한 신앙이 생겼다. 130,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이단이 없었다. 교회의 교단이 나뉘지고 싸우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성장도 했지만 문제가 많아졌다. 그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서도 생겼던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며 목사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는데, 창세기 3장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또 사단이 역사하고 이단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1.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의 옛 틀이 무엇이며,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한다. 사도요한이 말했던 내용을 나누고자 한다.

(1) 처음부터 사탄의 전략은 인간이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행하던 오래된 옛 틀이다. 범죄한 아담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었다. 여러분, 숨지 말아라. 예배시간에 기둥 뒤에 앉는 경우가 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앞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자꾸 보고하고 자꾸 만나지 않는 사람이 밖에서 훌륭한 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꾸 목사님을 피해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로 가지고 나오면 해결된다. 빛으로 나와야 한다. 문제가 있을수록 교회에 나와야 한다. 오늘 새 신부가 왔는데 목사님하고 소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어떤 분은 그런다. 연애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허락받고 보고하고 하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 왜 연애하는데 그러냐고 한다. 그렇지 않다. 좋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당신 없인 못살아’ 시작했다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남편도 아내도 자기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속내를 목사님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작부터 잘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 못 참다가 목사님에게 말하고 교역자들에게 말하고 지도받아서 넘어갈 수 있다. 오늘도 결혼세미나에 가는데 좋은 언약을 붙잡고 오기를 바란다. 다른 것은 다 배우고 준비하고 교육받는데 결혼생활은 교육받지 않고 한다. 하지만 배워야 한다. 오늘 결혼세미나 가서 배우고 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것이 다락방이다.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숨기지 말아라. 수치스러운 것까지 내용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숨기면 사단이 역사한다. 남편이 다섯 있는 수가성 영인이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는가. 처음부터는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말씀드렸다. ‘내가 남편이 다섯 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분이시구나.’ 하면서 온 마을에 전했다. 빛으로 다 전한 것이다. 여러분,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해결될 것 없다. 문제도 자랑하기를 바란다. ‘이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이 문제는 천 년의 응답을 받을 응답이야.’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 부모님, 선생님 앞에 나가라. 바쁘니까 너무 많이 찾아오지 마시고(웃음)

(2)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영으로 오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한다고 가르친 것이다. 당시 활동했던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했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 된다. 체쩍 맞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까지 활동했던 많은 이단과 지금 활동하는 이단들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천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깐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서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하는데 이 신천지는 역대급이다.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다 깨진다. 교회 앞에서 여러분의 단점 다 내뱉라. 탐사역 받아 봐라. 다닐 교회 하나도 없다. 그것을 넘어서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요한 사도가 사랑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이단과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다시 육과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한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이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24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신다. ‘먹을 것이 있느냐.’ 왜 물어보셨을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실 때 우리 같은 육체는 아니지만 부활체였다. 상처도 입을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도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썬다. 세월이 지나도 절대 늙지 않는다. 그것이 부활체이다. 모든 문제 끝난 줄을 믿기를 바란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있다. 속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마귀의 영은 기준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부활

하셨다는 것이다. 부활체가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다.

(3) 또 다른 사단의 전략은 교회의 전통과 법과 정의를 앞세우면서 사랑을 없애는 것이다.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교회가 오래되던 형식과 상처와 미움만 남고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으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상처, 미움은 남고 사랑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100년 가까이 된 초대교회는 교리싸움이 많았다. 신학적으로 논쟁하면 교리만 남고 복음과 그리스도와 사랑은 없어진다. 한국교회가 그랬다. 칼빈 신학을 말하면서 칼같이 다 잘랐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과 덜 영광이 치고 박고 싸운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서 싸웠다. 그것이 영광인가. 하나님은 다 양보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교리는 맞는데, 사실 깊이 알면 자기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기를 바란다. 성령의 지혜만이 참된 지혜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별이 된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언어적으로 분별이 안 되도 영으로 우리는 다 안다. 그것이 진짜 앎이다.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주장하다보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장 중요한 전도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선이 무엇인가. 혹시 좋은 일을 했는데도 오해를 받는다. '오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면서 참는 게 낫지 '내가 그러지 않았다.'하고 주장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누명을 받지 않았는가. 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세상 법으로 싸우다가 세상 법으로 고발한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다. 오늘 교회에 많이 일어나지 않은가. 완전 복음으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 이쪽에 와있다. 기도해야지. 생각을 많이 하다보면 이 상황에 오게 된다.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란다.

2.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새 틀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과 사랑의 새 틀이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마귀의 옛 틀을 깰 수 있는 복음과 사랑의 새 틀을 말하고 있다.

(1)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들은 바오 눈으로 본 바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승리하면 그것이 만진 바 된 것이다. 어떤 성도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과 여건이 정말 되지 않는데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의 역사를 자세히 보고 주님을 만지는 것과 같은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린다.

(2) 복음의 새 틀이란, 우리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8-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새 틀이다. 남의 죄만 말하지 말고 자기의 죄를 말해라. 우리도 앞으로 고해성사하려고 한다.(웃음)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천주교처럼 꼭 이야기를 해야겠는가. 내가 지금 부족한 것과 잘못된 일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시순절 기간이지 않은가 40일 동안 십자가를 목상해 보기를 바란다. 우리의 머리로, 몸으로, 양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께서 찢리시고 매를 맞으셨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3.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새 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1)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복음의 새틀을 입은 사람이다.

(2) 요한일서 4장 7절을 꼭 읽어보면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이다. 4장 7절부터 12절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간다는 말인가. 아니다. 강조법이다. 너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교리적으로 하지 말고 속마음과 체질을 바꾸어서, 따지고 제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것이다. 요한 사도가 그랬다. 육하는 성격에서 세월이 지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다. 베

드로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사랑하는 덕을 가진 최고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열매를 주령주령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사랑의 열매, 소중한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한 사도는 생각했던 것이다.

(3)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목사님 저 이제 구원받았어요.' 한다. 그래서 '왜?' 물었더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한다. 농담 삼아 이야기한다.(웃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을 믿기를 바란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역사이다.

결론. 요한일서에 나오는 중요한 요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CVDIP를 찾아 보고자 한다.

1. 요한일서 3장 8절과 언약이다.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창세기 3장에 말한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이다'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이다. 이미 사단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박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2. 요한일서 1장 9절과 비전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구원의 복음을 237개국에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몰라서 고해성사하고 수행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지키며, 다른 길로 가고 있다.
3. 요한일서 4장 1절과 꿈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꿈은 이단과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살리는 것이 되어야겠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야겠지만 선악과는 무엇이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금 에덴동산가면 선악과 따먹겠는가. 안 따먹겠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따먹죠' 한다. 지난 주에 몇 개 따먹었어요? 하니까 '몇 박스 따먹었죠.' 한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선악과는 상징이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4. 요한일서 4장 8절과 이미지이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영적 서밋이다.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은 따지는 체질, 재는 체질, 누가 못하는가. 쉬운 체질이다. 사랑의 체질이 어렵다. 그러나 나의 틀을 깨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린다. '저 사람을 보면 달라. 어떻게 하면 저릴 수 있을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고의 미래의 응답을 이미 언약으로 갖고 있다.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오염되게 하는 행동을 절대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5.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실천이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야겠다. '증거는 이것이니' 구원받은 증거이다. 어떤 분이 말한다.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777현장과 5시대를 치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 받고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응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순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목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옛 틀이 완전히 깨어지고 복음과 사랑의 새 틀로 다시 한 번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